

“1등 못해 아쉬웠던 콩쿠르…자극되어 한 걸음씩 더 성장”

호남예술제 70년

〈9〉호남예술제를 빛낸 예술가 - 박승유 지휘자

초등시절 첼로 부분 입상…빈 국립음대서 지휘 전공 국제대회서 주목
양주시향 상임지휘자·K-아트 예술감독 “호남예술제는 지역 자긍심”

“호남예술제는 초등시절 1등을 못해 아쉬웠던 콩쿠르였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하며 학사·석사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각종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수상하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 박승유 지휘자. 국내 클래식계의 젊은 리더로 손꼽히는 그에게 호남예술제는 색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다.

어릴 적부터 첼로를 연주하며 각종 콩쿠르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에게 호남예술제는 첫 ‘좌절’의 기억이었다. 초등학생 시절 첼로 부문에 참가해 입상을 하긴 했지만,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박 지휘자는 그 경험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회고한다. “그때는 그냥 그런 가보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중요한 자극이 됐어요.”

그는 호남예술제를 “처음으로 지정곡을 준비하며 예술가로서 숙제를 받은 경험”이라고 했다. 현재 현악 부문은 자유곡으로 진행되지만, 당시에는 지정곡이 있었다. 어린 참가자들은 낯선 곡을 짧은 기간 안에 익혀 무대에 올랐고, 이 과정은 많은 예술 꿈나무들에게 성장의 자양분이 됐다.

호남예술제 이후 한 걸음씩 나아간 박승유 지휘자는 중학교 졸업 후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해 첼로를 전공했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에 최연소로 입학해 첼로를 배운 그는 ‘음악가로서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며 지휘의 길에 들어섰다.

2015년 런던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 2018년 부카레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주최 국제 지휘 콩쿠르 청중상 수상, 2019년 한국지휘자협회 최우수 지휘자 선정 등으로 국내외 음악계 주목을 받았다.

“청중에게 흥미로운 해석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지휘자”라는 평을 얻으며 차세대 음악가로 입지를 굳혔다.

“연주는 혼자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지휘는 혼자 만들 수 없는 예술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는 지휘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신뢰’를 꼽는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리허설에서 신뢰가 쌓이면,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에게도 각별한 순간이 있다.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라인 황금홀에서 지휘자로 데뷔했던 날이다. “그 홀에 서는 것만으로도 감격인데, 제가 좋아하던

라벨의 ‘라 발스’를 지휘하면서 데뷔했어요. 음악적으로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정말 큰 감동으로 남았죠.”

현재 박 지휘자는 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이자 성신여대 출강 교수, 그리고 광주·전남 지역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K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K-아트)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유학 초기에 막연하지만 단단한 목표를 세웠다. ‘연주자 → 음악가 → 예술가 → 좋은 사람’. 클라우디오 아바도나 마리스 안손스처럼 ‘인격과 음악이 함께 위대한 지휘자’를 되고 싶다는 그는, 궁극적으로 음악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하고 싶다.

K-아트 활동도 그 연장선에 있다. K-아트는 국내 초연, 아시아 초연, 독특한 레퍼토리 발굴 등 실험적 기획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지휘자는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의 새로운 활력을 꿈꾸고 있다.

“각 오케스트라가 개성 있는 색을 지녀야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려 그 지역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마치 마술피리 3스타 식당처럼 ‘3스타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박 지휘자는 호남예술제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의 흐름을 지향해온 굉장히 소중한 축제”라고 말했다. 단발성 대회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70년을 이어온 예술제의 명맥은 그 자체로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예술의 길을 걷는 후배들과 자녀를 호남예술제에 참가시키는 부모들에게도 따뜻한 조언을 남겼다.

“예술가들은 지적받는 일이 익숙하죠. 하지만 스스로를 일으키는 힘은 ‘장점’에서 나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또 음악을 전공하든 그렇지 않든, 음악을 오래 곁에 두고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박승유 지휘자가 음악회에서 지휘를 하는 모습.

〈박승유 지휘자 제공〉

‘4K 디지털’로 고전 명작 감상

광주극장, 27일~7월 6일…1958년 작 ‘돈’ 첫 상영

올해로 개관 90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이 고전 명작을 4K 디지털로 새롭게 상영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광주극장은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K CINEMA GWANGJU’를 연다. 이번 상영회는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이 후원한다. 지난 8일 광주 동구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4K 레이저 영사기를 도입하면서 마련된 자리로, 디지털 복원된 고전 영화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첫 상영작은 김소동 감독의 1958년작 ‘돈’이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봉수의 이야기를 통해 1950년대 후반 농촌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어 29일에는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1949년)이 상영된다. 두 작품 모두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전 영화로, 등록문화재 추진을 준비 중인 광주극장에서 상영되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지난해 한국 영화 100선 중 하나로 꼽은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년)도 28일 오후 4시 4K 버전으로 상영



오토모 가츠히로 감독 1988년작 ‘아키라’

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이명세 감독이 직접 극장을 찾아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명작도 함께 소개된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SF 클래식 애니메이션 ‘아키라’(1988년·오토모 가츠히로, 29일 상영), 오사이 마모루의 ‘공각기동대’(1995년, 7월 6일 상영), 그리고 소마이 신지 감독의 후기작인 ‘이사’(1993년, 7월 6일 상영)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아우슈비츠 담장 안과 밖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독특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한 조나단 글레이저



김소동 감독 1958년작 ‘돈’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2023년, 30일 상영)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8세기 시대극으로 올해 개봉 50주년을 맞는 작품 ‘배리 린든’(1975년, 7월 5일)도 상영된다.

기타 상영작과 세부 일정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광주극장을 위해 기부해주신 시민들과 관객들 덕분에 개선된 상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들로 시민들과 만나며 광주극장 100주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김혁정 초대전, 7월 15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겨울 꽃 여름 눈

‘겨울 꽃, 여름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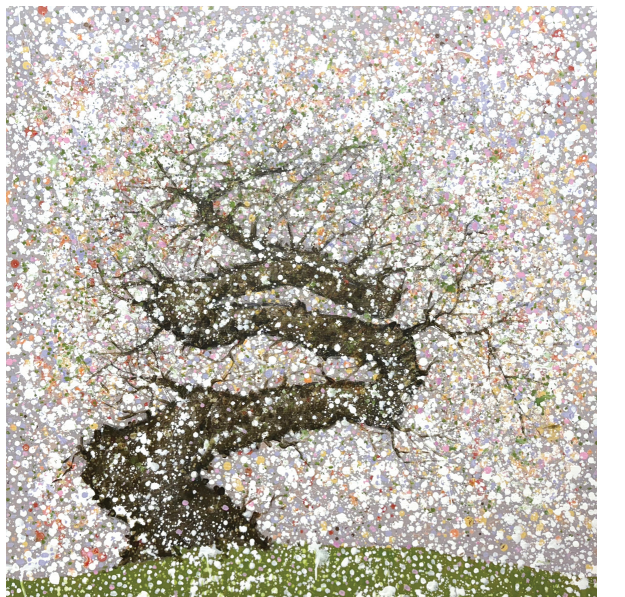
상반된 이미지의 조합이다. 여름에 소복이 쌓이는 눈을 떠올리고, 겨울에는 화사하게 핀 꽃을 상상한다.

김혁정 화가는 자연거를 타고 다닌다. 그는 느리고 한가한 시간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주변 풍경의 변화에 감각의 문을 열고 인사를 한다. 그에게 시간은 직진하지 않고, 자신의 감각에 맞춰 흘러간다.

속도가 더 느려진 산책 길에서 만난 작은 꽃들과 인간보다 더 오래살고 있는 나무들에게도 인사를 건넨다.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와, 가로등 아래 검은 하늘을 배경으로 내리는 흰 눈과도 인사를 나눈다.

김혁정 화가가 오는 7월 15일까지 전시를 연다.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펼쳐지는 ‘겨울 꽃 여름 눈’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는 주위의 자연과 소통해왔던 그의 내면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그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곳을 찾아 걸거나 혹은 큰 나무결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었다.

한때는 신화를 품고있는 운주사가 그런 공간



‘겨울 꽃, 여름 눈’

이었다. 나무들은 자연의 변화를 서사없이 온 몸의 꽃으로 피어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봄에는 연두의 잎으로 분홍 꽃으로, 가을이면 붉은 낙엽으로,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에 쌓인 눈꽃으로 말을 걸어왔다.

더불어 그의 내면은 그것들과 공명했고 붓을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그렸다. 자연의 세계를 작은 화폭에 담기 위해 그렇게 붓을 들었다.

그의 작품에는 겨울에도 꽃은 피고 있었고, 여름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환의 세계관이다. 이번 전시 주제가 시적이며 철학적인 까닭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